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4호 【루게 제24557호】 주제103(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시었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 앞

나는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역사적시기에 열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까지 합쳐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련 제22차 전체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4년간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자랑찬 기간이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조직내부를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적애국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하였으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총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조국통일을 위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의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 몰심량명의 애국지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나는 총결기간 총련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내고 애국사업전반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전환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의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 령도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총련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며 새 세대들과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애국선열들이 마련해놓은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곳곳이 이어가며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김정은애국주의를 마음속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총련은 각급 조직과 재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민족권을 옹호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외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발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력량이며

각계층 동포군중을 애국애족으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교양자입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살며 일하면서 대중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며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앞날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는 동포군중의 참된 부모자, 심부름군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무어주시고 키워주신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변함없이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 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적리정표로, 총련의 전반사업을 한계단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주제103(2014)년 5월 23일

평양

사설

주체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총련은 자기 수행,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무한히 충실한 해외교포조직, 지역의 엄중 환경속에서도 애국의 신념을 지키며 주체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는 불패의 대오이다. 총련과 같은 위대한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예이다.

오늘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제23차 전체대회를 성대히 진행해나간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들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애국위업의 새로운 전성기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뜻깊은 대회를 맞이하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이 가슴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같은 열기로 충만되어있다.

조선인민들은 재일조선인운동사의 갈피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태양의 빛따라 애국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의 인사말을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총련은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였던 총련조직을 애국의 대가 굳건한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총련 제22차 전체대회이후 지난 4년간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접경하는 모진 시련과 역경을 애국의 신념과 단합된 힘으로 과감히 뚫고헤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해온 자랑스러운 나날이었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 류폐없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총련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사수하였을뿐만아니라 각종 동포군중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중점적대외와 교육적대외, 조직사상적대외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총결기간 이룩된 주요한 성과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불패의 생명력과 무궁무진한 위력의 힘있는 파시도 된다.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총련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투쟁의 가치로 변형없이 높이 추켜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대외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교육의 고수발전은 애국위업의 승리의 담보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부터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주체적, 민족적정신을 고수하고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일본의 실정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며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애국활동의 주역으로 적극 내세워주며 새 세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총련의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운동인 동포회합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새 세대가 주역이 된 동포들자신의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키며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의 심화, 확대로 지부와 분회 등 기층조직들을 보다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재일조선인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민족문화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동포사회에 민족성이 차넘치게 하며 모든 동포들이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며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총련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들의 전진에 발돋움을 맞추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당기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하여 조일관계개선과 자기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영웅조선의 백승의 령도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세계를 향하여 비약해나가는 공화국의 약동하는 모습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주체혁명위업을 필승불패이러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앞길에 보다 휘황한 앞날이 펼쳐진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엄혹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태양의 빛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애국애족의 환경을 곳곳이 걸어 나가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조선인민들은 총련이 제23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고 일심단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김정은시대의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존엄과 기상을 더욱 높이 떨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각지 농촌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올릴 결심과 함께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모내기작업을 벌여나가고있다. 각종 농기계와 농구를 갖추고있다. 종횡된 자로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모내기작업은 70%이상, 씨뿌리기는 60%이상, 썩어가는 모내기작업은 20%에 불과하다. 각지 농촌에서 매일 일장제비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모내기를 최적으로 끝낼수 있는 전방을 열어 놓고 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작업에 앞장서고있다. 통천, 동림, 염주, 철산, 박천군과 정주시의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기실적자 모내기실적이라고 하면서 씨뿌리기를 앞세워 모내기일장제비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앞선 모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포천협동농장을 비롯한 한 회양군의 농장들에서도 모내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를 시작할 합추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집단적현신의 불길드높이 열출 남짓한 기간에 모내기계획의 40%계선을 돌파하였다. 농사를 잘하는것이 조국의 운명, 혁명의 승패와 판명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영광군, 신포시, 흥원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에 기어올릴 결심을 굳혀 모내기작업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매일 수천정보의 포전에 모를 내리고있다.

황해북도,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도 농업전선에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것을 실감에 새기고 떨쳐나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모내기작업을 신속하게 조직진행하는 것으로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단단의 준비를 갖추고 모내기전투에 들어간 안변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체제표로 50 톤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성과

모내기전투에서 현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필요한 대장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20수직갱 준공

검덕광업련합기업소 20수직갱이 준공되었다. 20수직갱이 완공됨으로써 광업부문은 광석이 많이 매장되어있는 심부저부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을 훨씬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방이 열려있다.

광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검덕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이렇고 방대한 20수직갱건설의 첫 발파소리를 울린 때로부터 생산 전기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

복공사를 3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직갱 기본굴착 및 콘크리트 치기와 함께 설비설치, 구조물 작업에 진입한 설비조립작업의 로동계급은 지상확대조립방법을 받아들여는 등 대담하고 튼튼한 일보대로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사업소의 투쟁정신을 안고 이들은 수백m의 아찔한 수직갱 허공에 강철구조물들과 권양기 등 각종 설비, 장비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전격적으로 끝내었다.

공부분공장과 자재, 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여 각종 장치물들과 세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건설기간 련합기업소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

적지혜와 힘을 합쳐 수직갱의 가치있는 갱건설 공법과 지구들을 창안도입하여 세멘트와 목재, 로력을 절약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20수직갱 준공식이 20일에 진행되었다.

검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직갱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팽목생성시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수유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무성한 숲은 참된 애국을 노래한다

실속 있게 내 밀자

서흥군에 가면 무성한 숲을 이룬 수유나무림을 볼 수 있다.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고 설레이는 이곳의 수유나무들은 모두 우량품종으로 개량된 정방 1호, 정방 2호 수유나무들이다. 이 수유나무 한그루에서는 평균 5kg이상의 열매를 따들이고있는데 정방 1호 1t이상의 기름을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우량품종의 수유나무림! 무성한 숲에는 그것을 가꾼 주인이 있는 법이다. 그가 바로 서흥군수유나무림사업소 직원 김진식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김진식동무가 수유나무의 재배방법과 육종연구에 달라붙은것은 대학시절부터였다. 수유나무가 좋은 기름나무이므로 많이 심어 기름문제를 풀는데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과 결지는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들고 대학에서 조직한 경제식물연구집단에 참가한 그는 수유나무의 우량품종을 가꾸어 개발하여 온 나라에 퍼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탐구의 강령군을 시작하였다.

서흥군 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

경애사리원농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서흥군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서도 그의 연구사업은 계속되었다. 우량품종의 수유나무를 찾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흥시 등 전국의 높고낮은 산밭을 타고 걸고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게 채취한 2kg 남짓한 종자를 가지고 그는 대학시절부터 연구한 논법방법으로 우량품종의 수유나무싹을 길러냈다.

그러한 때인 주제 82(1993)년 10월, 그는 영광스럽게도 어머니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경제부문 일군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께서는 경제부문 일군회의가 끝나는 마감날에 몸소 자신께서 정원에서 심고 가꾸신 수유나무를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유나무를 많이 심어 기름문제를 풀자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이날 그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한그루의 나무, 한송이의 열매를 보시고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수령님의 그 높은 뜻을 이 몸이 열조까지나 한이 있더라

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리라.) 그의 심정은 더욱 뜨겁게 고동쳤다.

3대혁명소조생활을 마치고 서흥군수유나무림사업소에 배치된 그는 늘 바쁜 나날을 보냈다. 우량품종의 수유나무를 전국에 퍼지기 위한 기술지도로 여러 시, 군을 다니며 맹활약을 하였고 수유나무의 경제적가치를 더 새롭게 확충하기 위해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협동연구도 벌여냈다.

당의 믿음에 의하여 지배인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그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우량품종의 수유나무를 전국에 퍼지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냈다. 양묘장과 유목원을 꾸려놓고 우량품종의 수유나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사업소 종업원들과 지혜를 합쳐 열매가 잘 안 달리는 나무를 논법방법으로

배경은 전국의 많은 시, 군들에 도입되어 수유나무림조성과 그 재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십년세월 당정책관철을 위한 헌신의 한걸음 걸어온 지배인 김진식동무와 이력 종업원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다.

—당정책을 이룰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관철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참된 조국애라는것을.

무성한 숲을 펼친 수유나무는 오늘도 참된 애국자들의 삶을 말없이 전하며 꽃피어 설레이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옥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재령광산 일군들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 쓰고 작전을 하듯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적 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재령광산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라없이 박토산을 뒤덮은 수유나무림, 아카시아나무림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박토산의 많은 면적에 뿌리를 내린 수유나무들이 이제는 숲을 이루어 광산의 풍치를 돌고돌고있으며 그 열매로 해마다 기름생산을 늘여 광부들에게 공급할백백비수생산을 물론 생산경영활동에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쓸모없던 박토산을 보배산으로 전전시키고 광부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광산일군들의 사업경험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가 당정책에 정통하고 당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사색하고 실천하는 일군들의 사업태도

사업에서

있고 종업원들을 당정책관철에

도 불려일었다. 일군들이 군의 여러곳을 다니며 수종이 좋은 수유나무모를 구해오고 그 재배방법도 배워왔다.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거름지계를 지고 박토산을 오르내리는 일군들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수유나무림조성에 열매를 내었다.

당정책관철전에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선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기풍은 좋은 결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박토산에 나무를 심어 왜 살려낼수 있겠는가, 수유나무의 비배관리경험도 없는 우리가 시작한 배종과 결실을 보지 못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속세를 드러내보였다.

—광부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이라는것을 알면서 무슨 당의 뜻을 꽃피우는 일군들의 사업태도라 하겠는가. 당에서 하려고 한 일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에서 두로 열까지 치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것을 꽃피우려는 일군들의 사업태도이고 편집이다.

광산대기업의 호소는 일군들의 그로된 생각을 바로잡아주

리원군에서는

지난 수집년간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려 수백정보의 수유나무림을 품을 들여 조성하여놓았다. 이것은 군살림살이의 큰 밑천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에 군에서는 적지 않은 땅의 수유나무열매를 따들이고있는데 그 수확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읍지부와 여러 농촌리들의 야산들에 수유나무를 조성해놓으니 군의 풍치가 한결 아름다

주목되는 수유기름의 리용가치

수유기름의 리용가치가 더욱 부각되고있다. 수유기름은 공업

용원료로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그 분야가 확대되고있다. 회창군을 비롯하여 여러 시, 군들에서 수유기름으로 생산한 백미는 고급백미로 인정받고있다.

찬물에서도 거품이 잘 일고 백미가 잘되기때문에 수유기름으로 만든 비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지방공업공장에서 수유기름을 3색형판크, 뽕기류 비롯한 칠감, 보일유, 머리카락 등의 생산원료로 리용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과학자들은 수유기름을 식용유로 전환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어머니수령님께

군살림살이의 큰 밑천

리원군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기름나무림도 조성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름작물종자도 해결하여 기름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품을 들여 조성해놓은 수유나무림에서 많은 기름을

실속 있게 내 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수유나무를 많이 심어 기름문제를 푸는것은 우리 당정책이다.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수유나무림이 조성되어 해마다 그 열매생산이 늘어나 가까운 앞날에 수유기름으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다.

모든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유나무림조성과 비배관리에 더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유나무림조성이 가지는 경제적효과성을 잘 알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실속 있게 내 밀자

서흥군수유나무림사업소의 모범을 본받아

모든 시, 군의 수유나무림사업소들에서는 양묘장을 꾸려놓고 필요한 나무모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나무모상태에서 우량품종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수유나무비배관리에 중요한 시기는 농부문의 영농시기와 같은것만큼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일군들부터 당정책관철에 대한 높은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수유나무림조성과 그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림지개간, 열매따기 등 노력이 많이 드는 시기에 군중적운동으로 내밀어 하나의 열매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 수송수단보장, 건조장구리 등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정책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유나무림조성과 그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내밀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속 있게 내 밀자

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

우량품종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냈다.

리원군수유나무림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는 주인다운 밑에서 그루마디에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수유나무열매를 여러 가지 질 좋은 거름도 많이 주어 해마다 열매생산은 늘어나고있다.

제철으로 보다 윤택하고 행복 한 생활을 가꾸어가는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이 반드시 알찬 열매를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서대지공장 현대화공사 완공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죽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온 나라에 대한신, 대비약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능력이 큰 강서대지공장 현대화공사를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넓은 부지면적에 종축사, 비육사를 비롯한 생산건물들과 고기 가공장, 먹이공장등 같은 보조생산건물까지 포함하여 10여동의 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다.

경사지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섬은 공장에는 종합적인 실시간감시조종계가 확립되었으면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그르히 갖추어져있다.

남포시에서

강서대지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물질생활을 마련해주실러 온갖 실험을 다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시 당 위원회에서 어머니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아로새겨져있는 강서대지공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여러차례의 현장협의 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운 시의 일군들은 강력한 공사지휘부를 꾸리는데 있어 노력과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개건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금성 트랙터공장, 강서관광을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강서

구역에서

떨어져 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건축공사와 지붕공사, 구내도로포장, 주변정리작업을 리듬적으로 붙이면서 나갔다.

김정남, 리선동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전투현장에 깊이 들어가 건설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려일었다는 한편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건설물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설비제작과 설치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경제조직사업과 전투지휘를 짜고들었다. 대단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전설비생산 전투를 긴장하게 벌리는 속에서

동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종합면적이공설비를 비롯한 여러 설비제작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냈다.

종합감시조종계가 확립되고 물공공계통의 자동화, 각 호동의 실내온도보장설비들에 대한 원격조종이 실현되기까지에 는 시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결심과 애국심을 지니고 종합조종실, 공장문화회관, 먹이창고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리고 두개의 큰 탄력물체배장을 개건하였다.

중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일신된 공장에서는 돼지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참된 애국심이 자기 일터를 빛내인다

금야영예군인일용품공장 지배인 위용진동무와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지방공업공장의 이름이 한계 군의 지경을 빛어나 차츰 널리 알려지고있다. 각종 규격의 비닐판과 비닐막, 형태와 모양이 다양한 여러가지 용도의 가정용비닐제품들...

금야군뿐만아 주변군들의 농촌들, 건설장부, 살림집들에 들여보내고 3대혁명붉은기 금야영예군인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볼수 있다는것은 결코 한두사람의 말이 아니다.

바로 그속에 지난 20년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의 힘과 지혜, 자기들의 탐과 손으로 창조 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온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야기가 있다.

공장의 이름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단위들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요에 맞출뿐아니라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상품들을 마추할 때 그것을 생산한 단위의 이름을 유심히 보며 여러속에 새겨넣기도 한다. 공장의 진정한 이름은 바로 인민들의 평가와 기억속에 있는것이다.

위용진동무가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임명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손꼽을 정도였다. 설비라 고는 간단한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몇대의 사출기와 재봉기, 두대의 직기가 전부였다.

그러던 공장은 오늘날은 40여종에 60여가지의 각종 비닐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

참된 애국심이 자기 일터를 빛내인다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그르히 갖추어져있다. 지방자체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자체적능력을 모르는 단위로 되고있다.

지금도 이력 종업원들은 새로 임명된 지배인이 첫 사업으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한 후에 한 이야기를 더듬어보군 한다.

—우리 공장에 인민생활을 위해 조국이 맡겨준 한계 초소가 있나. 그런데 생산되는 제품에서는 차이가 있나. 빠른 걸음으로 시라도 인민의 복부자로서의 구실을 하자.

단위명칭이 있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있다고 하여 공장이 아니다. 인민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해도 사실 그 공장은 비어있는 일터나 다름없다는 것이 일군의 립장이었다.

지배인의 그날의 이야기는 해마다 멀어져간 인민경제계획을 어렵게 이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해오던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분발하게 하였다.

공장의 얼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민들의 수요를 갈망하기 위해 일군들이 많은 힘을 쏟았고 종업원들도 자기 사는 마을의 집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후 공장에는 새 설비들이 소문없이 하나둘 들어왔다. 어디에서 구입해온것이 아니라.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설계가 되고 선반공이 되어 하나하나 조립한 설비들이었다.

참된 애국심이 자기 일터를 빛내인다

조, 소꿉이, 그릇 등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자그마한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대머치, 중머치 그리고 절일, 운반 등에 리용할수 있는 50L짜리 통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가지수가 하나둘 늘어났다.

그렇게 되니 무엇보다도 부족되는것이 자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뿐아니라 가족들도 지방자체를 구입하기 위해 밭도 못 뛰어들었다. 그렇게 한해, 한해 모아야할 생산에 리용한 자재들은 해마다 웬만큼 화물자동차로 수직차뿐이나 되었다.

해마다 불철이던 농촌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비닐막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자고 지배인이 결심하였을 때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자신있게 나섰다. 그렇게 걸어온 길이었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이었다. 그 날 이들이 그린 설계도면들은 과연 몇 장이었고 해결한 기술적문제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새로 제작된 설비에서 마침내 비닐막이 쏟아져나오자 지배인은 또다시 비닐판생산설비를 만들것을 발기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놀랐다. 한가지 규격도 아니고 8가지 규격의 비닐판을 생산할수 있게 한것에 3대의 설비들을 차려놓겠다고 하니 쉽게 들어들수 없는 일인것만은 사실이었건이다.

하지만 어제만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펼친 병사들, 오늘도 조국이 맡겨준 일터를 인민생활향상의 제 1선봉으로 여기고 내달리고있는 자력갱생의 강자들은 불가늠을 몰랐다.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성공의 열매가 주렁졌다.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늘이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늘이

참된 애국심이 자기 일터를 빛내인다

는것과 함께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제하고 생산을 위한 사업도 일관하게 기울여오고있다. 생산자이기 전에 소비자의 립장을 확고히 서서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놓고 《다시!》, 《또다시!》 하고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에 공장의 얼굴이 비친다. 그 얼굴을 다듬어낸 인민이 보며 인민이 평가한다.

생산되는 제품과 공장의 얼굴, 참으로 많은 의미를 새기게 해주는 일종의 척도이다. 내용이 없는 가식이나 그 어떤 자랑으로 슬금슬금 없던것이 바로 제품의 가치이다. 좋은것을 보는 인민의 눈은 정확하며 그들이 내리는 평가는 솔직하고 공정하다. 보다 중요하게는 사용자들이 제품을 보고 그것을 만든 공장의 이름을 먼저 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인민세를 논하게 된다.

이 공장에서 지방자체로 만든 비닐막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금야군과 주변농촌들에서 좋은 평을 받고있는것도, 각종 규격의 비닐판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있는것도, 여러가지 가정용비닐제품들이 다른 군들에까지 퍼져가고있는것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투쟁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다.

누구에게나 조국이 맡겨준

일터가 있다. 어깨우에 지워진 짐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일터가 위훈자들을 낳는것은 아니다. 참된 애국의 마음은 모든 일터를 빛내이게 한다.

본사기자 김충성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 본사기자 립학락 찍음

박토산이 무배산이로 되기까지

품종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면 시

백두산에 계승자 대오가 행군해 간다

이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이른아침 깊은 밤 때없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며 애써 달래시던 마음 발걸음을 재촉하는가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찾아 백두산에 오신 최고사령관동지 달리시듯 빠른 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신다

헤어져 보낸 하루하루가 백달인듯 천달인듯 다시 만나시는 기쁨 안방에 어리고 반갑게 잡아주시는 손길로 가슴마다 뜨거운 정 부어지신다

느보라속 단사행군길 함께 가는 심정으로 가슴 불태우시더니 보고싶으신 마음 끝끝내 누를길 없어 하늘길 천리를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아, 이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총대전우들이 있는 곳이면 설사 그곳이 최전방전초라도 가까이 나서시고 풍광채찬 날마다도 서슴없이 걷는지는 사랑과 정으로 열렬한 그이의 심장

열렬의 그이 심장에 이어진 지휘관들의 피줄기마다 정이 흐른다 사랑이 흐른다 명령에는 복종이 있다 하지만 사랑과 정에는 충정이 따르거늘

목숨인들 아낌있으랴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불속인들 추추합있으랴 그이 가리키는 최후승리의 한길에

세계여, 알라 조전의 총대가 무엇으로 강한가를 자신을 다 주고 강그리 다 바치시는 최고사령관의 사랑과 정으로 버려졌기에 조전의 총대는 강하다! 천하무적이다!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각 장명도 대좌도 어느 누구도 줄때기 전사들과 다름아 없거니

한생을 적진과 마주하고 사는 용감무쌍한 무죄심장의 사나이들 저마다 원수님 가까이 서려고 없어질듯 달려가 곁에 안기누나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불마당질해 버릴 련합부대를 거느린 지휘관들 어린애마냥 원수님 팔을 꼭 잡고 행복의 눈을 감추시 못하누나

아,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울고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여 력사의 순간을 사진속에 멈춰세워 놓고 너는 말하여주시는구나

원수님의 제일동지 총대전우들이 최고사령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를 아, 천백마디 말보다 더 뜨거운 말없는 말로 속삭여주는 기념사진이여

(2) 설에는 백두밀림을 배경으로 우리 원수님 항일전쟁터에 앉으시어 지휘관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

처음 보는 사진이지만 누구나 하나같이 말한단대 너무도 눈에 익은 사진이라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앞에 둔 그날 우리 수령님과 이렇게 앉으시어 투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고

사진은 서로 달라도 모습은 하나 원수님은 항일의 날 수령님과 똑같으시다고 지휘관들 얼골엔 투사들의 정성이 비껴있다고

세대를 이어오는 백두의 행군길에 백승을 떨치는 조선혁명 불멸의 그 화폭이 어린 사진이여

사진은 서로 달라도 안겨주는 심심은 하나 누구나 확신에 넘쳐 말한단대 최후승리는 앞에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이른불날 백두고원의 맨찬 바람 외투지락 날리는데 찬바람속에 그당 서서서 오래도록 손 흔들어주시는 원수님

부디 안녕히 다녀가시라 격정은 뚫어 가슴의 뚝을 눈물로 넘고 간절할 마음은 하늘로 날아올라 원수님 타신 비행기를 따라서누나

그 먼길을 찾아오시어 한없는 영광 다 배우시기도 신통할 줄 모르시는 어버이 아, 멀어져선 순간도 못살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이여

장 해 명

그 사랑 그 믿음앞에 련합부대 어느 지휘관인들 오중총7면대장이 되지 않으랴 결전의 날 최고사령관을 지켜 육탄이 된다면 다시 없는 행복이여 영광이여

원수님 타신 비행기를 따라서서 간절히 간절히 안녕을 바라는 마음 저 하늘 가득히 차고넘친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따라 백두의 위업 총대로 완성하리라 계승자대오에 굽어치는 총정의 일련 단심 백두의 용암처럼 뚫어번진다

한 마디 더 쓰는 시

서둘러도 격정으로 끓던 나의 시는 이미 끝났지만 한마디만은 미국에 할 말이 있어 다시 붓을 들어 쓰는 시

나는 원하지 않았어라 나의 시에 미국이라는 더러운 이름이 오르는데도 허나 어이하라, 그대로는 이 시를 맺을수 없는것을

두염머리에서 쉬파리도 가려본다는 슬한 위성을 자랑하는 미국 남의 나라 대통령전화까지 도청하며 맨발처럼 놀아대는 제국 나는 알고도 남았으리라

북침을 노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이며 《쌍룡》전쟁연습이 한창 살기를 풍기며 독을 쓰던 때 우리의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전연머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 에 있었을을

편만 있으면 병사는 생기고 편이 없으면 사단도 없다는 미국사교대대로라면 그렇다, 바로 그때 우리의 전선은 비어있었다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려온 너 그 어느 나라든 맘대로 들부셔온 너

긴긴 열혈한 열혈함이 지나도록 기회가 없어 달려들지 못했던가 아니면 갑자기 착해지거나 했는가 다시 붓을 들어 쓰는 시

천만에! 미국이여 너는 악에 받쳐 날뛰면서도 소총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단 한번 김정은장군이 무서워 움직일 해도 재가투가 된다것을 알았기에

나는 아노라 나의 시가 투박하다는것을 그러나 굳이 다듬으려 하지 않노라 장담컨대 거짓은 없거니 미국은 나의 시가 하는 진실의 말을 들으라

빈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도적놈 마냥 너희들 안타까가 행가슴 앓을 때 어깨들씩 혁명가요요이 우리의 지휘관들이 걸은 답사길은 또 한차례 미국을 때려놓힌 전승의 열병행진이었다

미국은 골목에서도 잊지 말라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때엔 아메리카한복판에서 조선의 최후승리열병대오가 행진해간다는것을

이 한마디만은 해줘야겠기에 놓았던 붓을 다시 들어 시를 썼노라

오 직 총 대 로 !

높이 모신 동상의 대들우에서 수령님 땅우에 내려서신듯 빨찌산 김대장 모습 그대로이신 최고사령관동지 연설하신다

유서깊은 삼지연못가 혁명의 성산이 지켜보는 곳에서 줄기잡기 백두련봉에 메이리된다 두그루 분나무도 숨쉬며 설레인다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의 선언 줄기잡기 백두련봉에 메이리된다 두그루 분나무도 숨쉬며 설레인다

이 나라 흥망성쇠의 력사 반만년을 다 보아온 조종의 산아 어느때 당국의 비운이 드나들었나 어느때 그 무엇이 강국을 떨치게 했느냐

항일의 김대장 우리 수령님 총침을 비껴들고 너의 산발 넘나드릴 때 백두산아 보지 않았더냐 삼천리에 비껴오던 재생의 서광을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붉은기를 지켜가실 때 다시한번 새기지 않았더냐 총대를 떠나 이 조선이 없음을

숨겨가던 조선을 살린 총대 우리 사회주의를 지킨 총대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 최고사령관동지 엄숙히 선언하신다

이 나라 반만년의 증전자 백두산아 너는 길어길이 보게 되리라 총대우에 받들려 변형하는 조국을 영원히 승리하는 조선을 자랑하리라!

밀 립 이 설 레 인 다

행군길의 칼바람이여 생눈우에 지피던 숙영지의 우뚝불이여

계승자대오는 안고 가리라 선혈들이 목숨과 바꾼 이 땅에 총대로 통일조선 일떠세울 맹세 안고 멸적의 군단들과 사단들이 기다리는 곳 하늘과 땅 바다초소로 달려가리라

오, 밀림이 설레인다 발악하는 원수들을 일소에 불이며 포성없는 건승실록을 빛내시어 위대한 영웅의 기상을 온 세상에 자랑 하며 백두밀림이 설레인다

백두의 넋을 만장악한 총대놀이 최후승리공적전에 나서신 김정은원수의 영광찬란한 앞길에 백두의 장군봉은 미소를 보낸다 백두의 정일봉은 재운을 뿌린다

백두의 용암처럼 끓어번진다

찾아오실 때에는 달리듯 빠른 걸음이사더니

떠나가실 때에는 그리도 발걸음 무거우신가

기 념 사 진

(1) 어깨우에 별이 많을수록 그 별이 큰 지휘관일수록

바위같이 들직하고 파묵한줄 알았건만 아니였구나

예민한 서해열점수역을 박근혜군사 불한당들의 첫 무덤으로 만들것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정상적인 경계근무수행중에 있던 아군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이 총포사격을 해낸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을 가차없이 징벌하려는 우리 서남전선군사령부관하 전제 장병들의 보복열기는 하늘을 찌르셨다. 바로 이러한 때에 피뢰군부장급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오설까지 내뿜리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5월 22일 오후에는 우리가 연평도 근해에 있는 제놈들의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놈들이 대응사격을 가한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대며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지어 우리 군대를 《도발자》로 매도해보려는 심산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정당화해보기 위해 북남장병급 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명의로 우리 군대가 《화력도발을 감행》하여 정전협정과 북남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것처럼 경고하면서 그 무슨 중공통지문이라는것을 들여보내는 기만극까지 벌여놓고있다. 확인된 사실은 평화적인 중국어선단 속을 구실로 아군해상경비기선을 넘어 우리측 수역권이 침범한 피뢰해군함정

들이 선불질을 해대고는 그것을 우리가 포사격을 가한듯이 꾸며낸 기만극이었다. 선불질을 제가 해대고는 전혀 무근거한 우리의 《포탄발사설》까지 날조해내는 피뢰군부장급들의 날강도적인 처사는 박근혜당파의 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아무리 황실수설해대도 무모한 선불질에 매달린 도발적인 최행은 절대로

감출수도 용서받을수도 없게 될것이다. 우리 서남전선군사령부 전제 장병들은 뒷향고있는 피뢰군부장급들의 도발적인 책동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단단의 결전태세를 갖추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발자들에게 대한 중오와 불타오르는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들의 정열의지는 예민한 열점수역을 박근혜군사불한당들의 첫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야말것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이루어주고 농사에도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의 도,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 지도밑에 도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모든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지난 3월초에만도

농촌지원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평 안 북 도 에 서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진행하고 비닐막막, 트랙트르다이야를 비롯한 75종에 51만여점의 중소농기구를 비롯한 많은 영농자재와 물자들을 봉헌군 신안협동농장을 비롯한 17개의 협동농장에 보내주어 농업부문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뿐만아니라 신의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력사적인 토지개혁명령포 68발을 맞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트랙트르출동선과 부림소품평회,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진행하고 비닐막막을 비롯한 많은 땅의 물자와 트랙트르 부속품, 중소농기구를 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인민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명령을 총집중하여 농촌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정복공급대학을 비롯한 도안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달려나온 대학생들을 비롯한 지원자들도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공은 자각을 안고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당책임비서를 비롯한 100여명의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5월에만도 봉헌군 통합아협동농장과 피뢰군의

진심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기공

함경남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

함경남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농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좋은 기공을 발휘하여 농장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의 기계화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온 나라가 뚫쳐나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오자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먼저 함경군 동양협동농장에 나가 그곳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다음 여러차례의 협의와 연구 대책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일군들과 정부원들을 농촌지원에로 불러일으

키는 조직적지원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관리국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누구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자각을 안고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농장별에 달려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농사일을 알뜰하고 간직해 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관리국의 일군들은 매주 3일간은 사무실을 비우다싶이 하면서 모두가 농장에 달려나가 논두렁정리와 썩매치기, 모내기 등을 걸세하게 해제되고있다. 관리국아래 함흥건설공장의

대홍단군의 감자포전들에는 이곳 농업근로자들과 감자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지원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는 대외건설지도국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발자취도 새겨지고있다. 지난 기간 이곳 지도국에서는 삼봉농장의 농업생산전물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성의껏 도와주었다. 이렇게 훌륭히 건설된 농업생산전물건을 놓고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다.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집기를 비롯한 다양한 영농전투들에서 능장이 앞지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이곳 지도국일군들의 성의있는 지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올해에도 지도국의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많은 지원물자와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삼봉농장을 성의껏 지원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대홍단군에 달려나온 지도국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포전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휴식하면서 마주앉아 당정책을 귀에 속속 들어가게 이야기도 해주며 현실속처럼 어울리는 장학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모습은 농업근로자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의 생산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새벽이던 남천정 포전에서 받고받은 타고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곳 지도국정부원들의 모습을 보며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감자농사를 잘 지을 결심을 더욱 굳히곤 한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우리 선수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결정

【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위하여 하고있는 아시아올림픽퍼시픽 사회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

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이 참가한다는것을 아시아올림픽퍼시픽 사회에 공식통보하였으리 라서 사회와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경기대회참가에 필요한 신청을 곧 하게 된다.



로동자들을 생산적양양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 박천건설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명 남 찍음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5일 9시부터 보천보체육관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경기가 진행된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풍악산림과 판도봉림, 소백수림과 월미도림, 경공업수림과 선봉수림이의 남자경기, 서산속수경기

장에서는 4. 25리과 내고향림, 평양림과 리명수림사이의 여자경기가 있게 된다. 이날 10시부터 청춘거리 탁구경기관과 배구경기관에서는 4. 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경기, 내 1급 도관경기

와 4. 25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배구 남자 1급 도관경기가 각각 진행된다. 한편 기관차체육단에서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축구 여자 1급 도관경기가 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함흥에서 살고있는 제가 경주중앙이라는 진단을 받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된것은 몇달전 이날이었습니다. 심한 통증과 신경성압박으로 하여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병원의 밀차가 달려오고 즉시에 각종 검사들이 진행되었 습니다. 뇌진경의과 의뢰일군들의 협의회합에 저는 인차 수술 장에 들어섰습니다. 과장생년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저의 몸상태를 건강하게 관찰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담당의사 안철진선생님은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호소증상에 대한 대책과 이따금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생명지표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철칙도 미루어가며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주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세 치료방법들을 찾았으며 견강회복에 좋은 여러가지 음식들을 마련하여 끼니마다 저의 입에 넣어주곤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천사적인을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손길

병골인민당대표단 귀국 2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근조 조선로동당

농사터머리 전방에 콩콩콩하며

